

다이조지 절과 요시우라 신사

다이조지 절은 9 세기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져 현재도 많은 신자가 있는 진언종의 사찰입니다.

지장상

정문 왼쪽에는 지장보살(산스크리트어로 *Ksitigarbha*(크시타가르바)) 조각상이 여러 줄로 서 있습니다. 작은 조각상은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했고, 중앙의 큰 조각상은 많은 아이들이 신 위를 기어오르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이 모습들은 지장이 순수한 사람들을 지키고 오래 살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살펴 준다는 믿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언종에서는 태어나지 못했거나 어린 나이에 사망한 사람들은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깨달음을 얻을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장보살은 어린 나이에 사망한 사람들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지장상은 붉은 턱반이를 하고 있거나 옆에 장식용 바람개비가 놓여 있습니다. 이는 어린 나이에 사망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요시우라 신사

요시우라 신사는 다이조지 절 뒤편에 있으며, 다이조지 절이 건립된 후에 지어졌습니다. 인근 시오타쓰 마을에는 더 오래된 동명의 신사가 있으며, 두 곳의 신사는 공통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스노이케번 초대 번주인 나베시마 나오즈미(1616~1669)는 에도 시대(1603~1867) 초기에 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나오즈미는 도자기 산업의 보호와 승경을 위해 요시우라 신사를 건립했고, 도자기 산업이 번성하면서 참배자가 늘어났습니다. 후에 요시다 지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요시우라 신사가 건립되었습니다.